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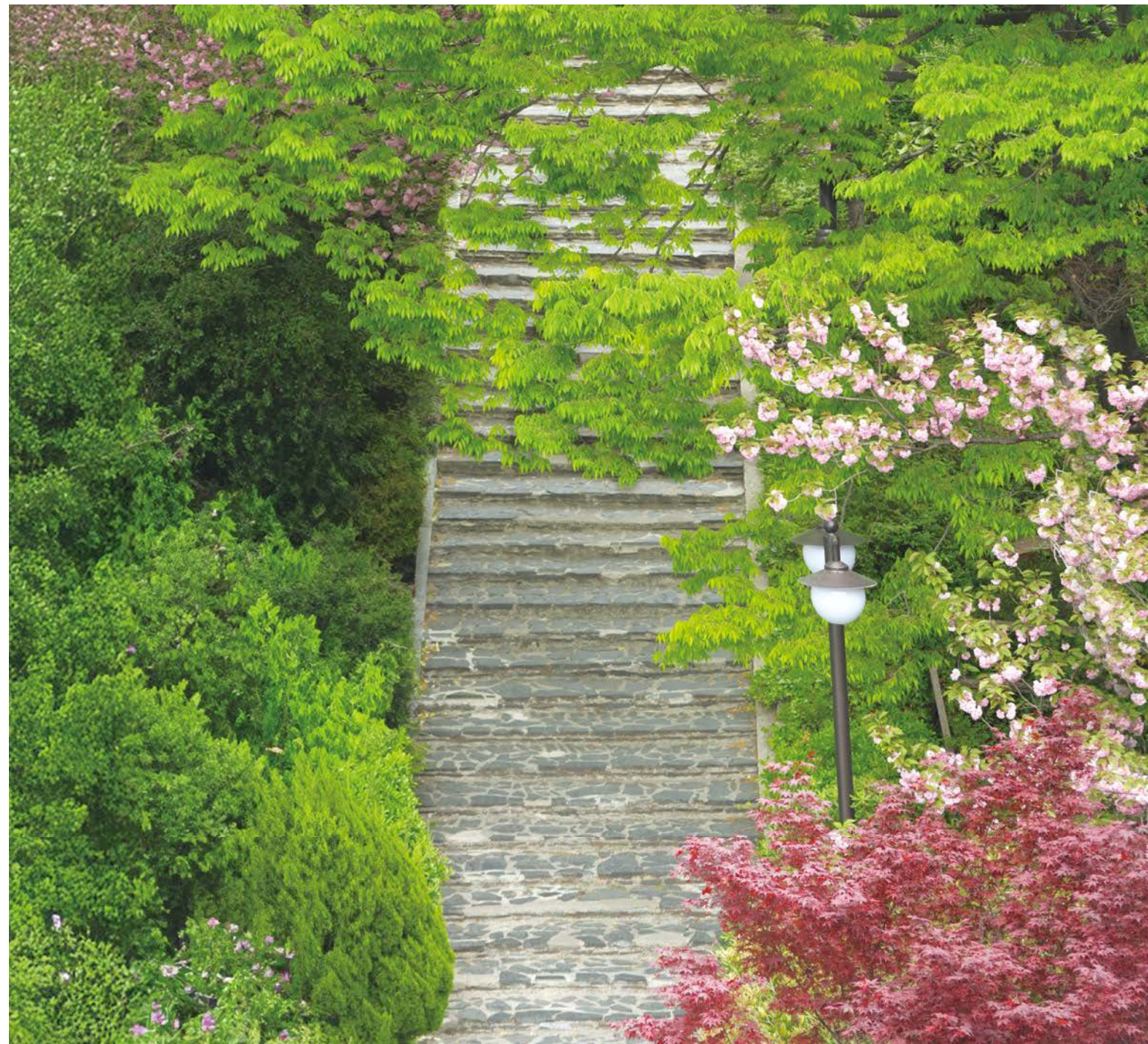
동아 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K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동이는 지금

126번째 소식지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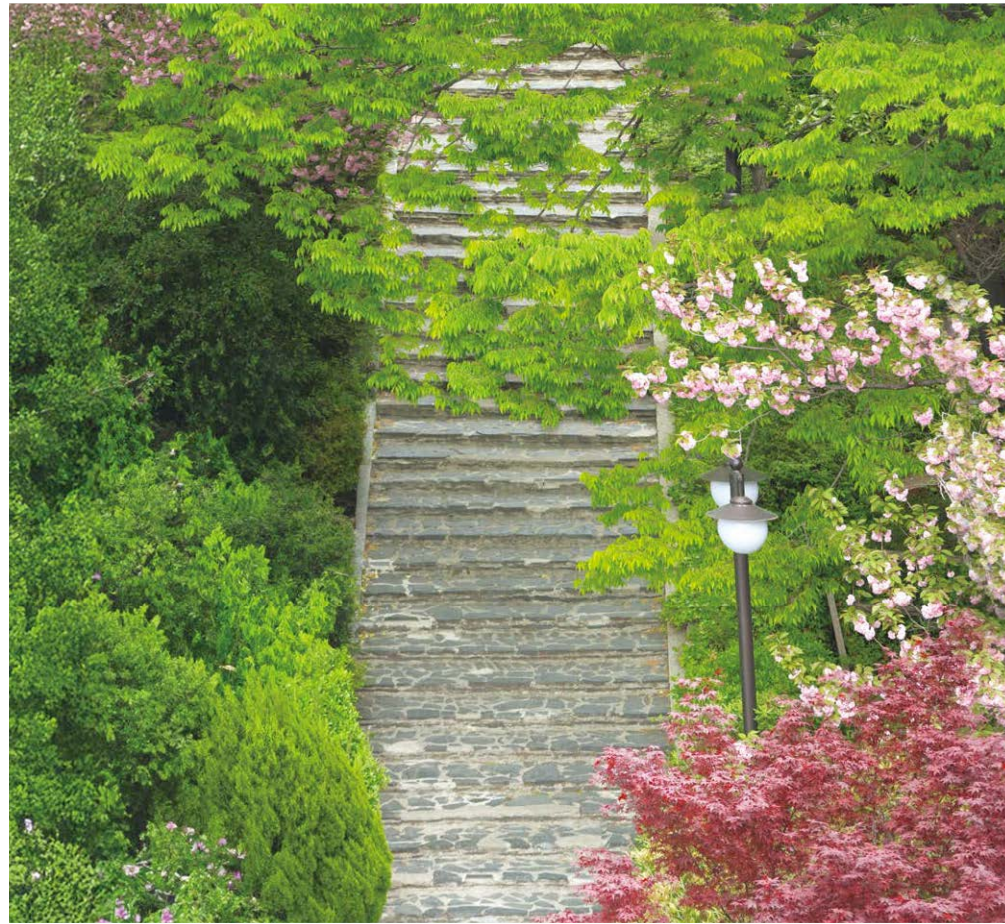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6

동이는 지금

동아대학교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26번째 소식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예술체육대학 1관 옆 진입로

겨우내 움츠렸던 교정에 푸른 기운이 돌아오고, 신학기의 설렘이 머무는 계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선 첫발이고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저마다 가슴 벅찬 내일을 꿈꿉니다.
때로는 가파른 순간들에 힘들 수 있지만, 한 계단 한 계단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4

04 '동아 80주년', 찬란한 역사를 마주하다



06 ISSUE FOCUS

06 동아대 RISE 사업 부산형 RISE의 심장이 되다
08 '영남권 최대' 부동산대학원
고급 실무형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다



10, 32 ESSAY

10 동아대 로스쿨 개원 이래 공직 합격자 '최대' 배출
32 기업·채용박람회, 동아대 축재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26호)

발행일 2026년 3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디자인대훈 051)898-0330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6 VOL. 126



12 HOT NEWS

- 12 개교 79주년 기념식 개최
- 13 개교 79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동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특강 개최
- 14 지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미래비전 선포
1대1대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 출범
- 15 '글로벌 연합대학 교육혁신 포럼' 개최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최종 선정
환경 분야 핵심인력 양성사업 선정
- 16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선정
K-STAR 비자 트랙 사업 선정
- 1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획득
GKS 대학원 특화트랙 수학대학 선정
- 18 국제교류 협정 체결 활발
- 19 지역사회와 탄탄한 협력 기반 마련
동아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활약상 눈길
- 20 K-MOOC 블러리본 강좌 선정
학군단 부산경남 최우수 대학 선정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우수관 선정
- 21 동아대 교수들 수상 & 연구 결과 발표
- 22 동아대 대학원생들 성과 & 학생들 활약
- 23 스포츠단 선수들 전국체전 맹활약
동아대 출신 김용수 장군, 육군 '소장' 진급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24 DONG-A PEOPLE

- 24 2025학년도 교육 업적 우수 교수
- 신성호·김점수·김오연 교수
- 26 2025학년도 연구 업적 우수 교수
- 김상진·조완섭·손민국 교수
- 28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CEO가 찾은 성공의 의미
- 박세철 (주)오리엔탈정공 회장
- 30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스물한 살의 청년
- 이임현 학생



34 HAPPY DONATION

- 34 발전기금 기부뉴스
- 41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동아 80주년’, 찬란한 역사를 마주하다



지난 80년간 한국 현대사와 동고동락하며 지역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한 동아대학교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입시 경쟁률, 유학생 유치 3,000명 목표, 승학캠퍼스 (가칭)교육동 신축 착공 등을 발판으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80년의 도약, 무한을 향한 도전

숫자 ‘80’을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곡선으로 시각화하고, 특히 숫자 ‘0’을 상승하는 알파(α)의 형태로 디자인하여 80년의 역사를 딛고 끊임없이 도약하는 동아대학교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습니다.

1946년, 교육의 싹을 틔우다

동아대학교의 역사는 광복 직후인 1946년 11월 1일, 법조인이었던 석당 정재환 선생이 부산에서 교육의 싹을 틔운 것에서 시작했다. 서구 서대신동 임시교사에서 첫 강좌를 개설했고 1947년 3월 20일 동구 수정동으로 임시교사를 이전하게 된다. 그해 12월 30일 재단법인 동아학숙 설립 허가와 동아대 설립인가를 정식으로 획득, 4년제 대학의 면모를 갖췄다.

1949년 4월 1일에는 동구 범일동에 새 교사를 만들었으나,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동아대를 비롯한 전국 교육계는 큰 시련을 겪는다. 이후 1951년 10월 5일 비록 임시교사 형태였지만 동대신동에 위치한 구덕 교사로 이전, 1954년 마침내 본격적인 구덕캠퍼스 시대가 열리게 됐다.

1959년, 한강 이남 최초가 되다

1959년에는 한강 이남 최초의 종합 사립대로 승격했으며 같은 해 4월 1일 석당 선생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1970~1980년대는 동아대의 전성기였다. 정치·사회·경제·문화·스포츠·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쏟아지며 현재의 위상과 30만 동문을 이루는 도약점이 됐다.

1970년대 들어 구덕캠퍼스 확장에 한계가 생기자, 동아대는 1978년부터 사하구 하단동에 승학캠퍼스를 조성한다. 또 2003년에는 옛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자리에 부민캠퍼스를 조성했다.

2026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다

이처럼 동아대는 연구·산학협력 중심의 승학캠퍼스, 도시·문화·국제교류 중심의 부민캠퍼스, 메디컬 중심의 구덕캠퍼스를 특성화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비수도권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대학 30’,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

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역량을 입증한 동아대는 산학협력, 실무인재 양성, 국제화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개교 80주년을 맞는 올해, 동아대는 찬란한 역사를 넘어 100주년을 향한 미래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개교 80주년 기념사업 현황

기념사업(안)	
행사 및 글로벌 분과	개교 80주년 개교 기념식 행사
학술 분과	AI시대의 학술 윤리 포럼
	누구나 연구자: 연구정보 + AI 활용 경진대회
	독서골든벨
	개교 80주년 기념 석당학술원 국제학술대회
홍보 분과	DONG-A 인문학 콘서트
	결핵퇴치와 박멸- 한국 크리스마스쌀 전시회
	동아 80년사 KNN 다큐멘터리 제작
	개교 80주년 기념 대외 광고
	개교 80주년 기념 굿즈 제작 및 앰블럼 제작
	개교 80주년 기념 릴레이 기부
예술체육 분과	개교 80주년 기념 롯데디자인츠 동아대 Day 시구
	개교 80주년 기념 「함께 뛰자,동아!」 마라톤
	KNN 부산시민 열린음악회
	개교 80주년 기념 공예품 제작
	개교 80주년 국제 동아예술제
B-헤리티지 분과	미주 태권도 대회 개최
	동아 80년 스포츠 명예의 전당 Dong-A 80years Hall of Fame
	개교 80주년 기념 총장배 통합 골프대회
	개교 80주년 기념 특별전시 <동아 80년(가칭)>

개교 80주년 월별주요행사

4월	8월	10월	11월	12월
28(화) 롯데디자인츠 동아대 Day 시구	미주 태권도 대회 개최	KNN음악회	1(일) 개교기념일	
		개교기념식	석당학술원 국제학술대회	
			DONG-A 인문학 콘서트	
		특별전시 <동아 80년>		



2025년 11월 동아대는 'RISE 특성화 참여기업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 RISE 사업 산학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이차전지, 수소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 기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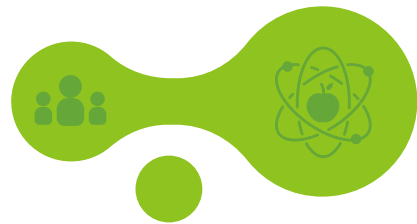
이차전지, 수소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동아대 RISE 사업 부산형 RISE의 심장이 되다

2025년 부산형 RISE 사업의 '연구중심형 대학'으로 선정된 동아대는 '2030 글로벌허브도시의 WAVE를 만드는 부산형 RISE'라는 부산시 비전에 발맞춰 '대학의 벽을 허무는 클러스터 기반 Practical Researcher 양성 대학'이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부산시 전략산업 중 에너지테크(이차전지, 수소)와 바이오헬스를 특성화 분야로 설정하고 지역 혁신의 주역이 될 '현장 중심 연구자 (Practical Researcher)'를 양성하고 있다.

+ 부산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기존 5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DAU-RISE 핵심 목표(5개년 누적합계)



신산업 선도형 | 이차전지

해양모빌리티 특화 배터리 인재양성·연구 거점

이차전지(배터리)는 전기차를 넘어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핵심 동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동아대는 이러한 해양모빌리티 특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이끌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산업 혁신형 | 수소에너지테크

고밀도 액화가스 기술 선도 및 현장형 인재 육성

동아대는 고기능성밸브기술지원센터(밸브센터)를 중심으로 수소 기자재 시험·인증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고밀도 액화가스 중심의 고난도 기술로 확장되는 흐름에 발맞춰, 에너지 기자재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과 연구 방향성을 설정했다.

학부·대학원 연계 융합전공을 통해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설계·시험 기술을 교육 강화했다. 또 밸브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형 교육을 병행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연구인재를 길러낸다. 아울러 특성화 협의체 기업과 산학장학생 과정을 통해 지역 정주형 연구자 양성도 실현하고 있다.

기술창업 활성화형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3대 트랙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인재 양성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창업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연구·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유망 기술 발굴과 고도화, 초기 검증 및 시장 진입 전략을 함께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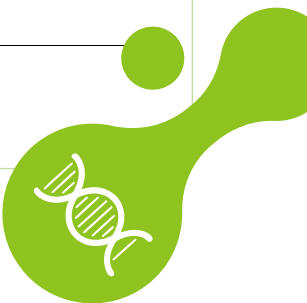
세부 분류는 ▲첨단신약 ▲바이오푸드 ▲디지털 헬스케어의 3개 트랙으로 구성한다. 첨단신약 트랙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기술이전

화학공학과를 중심으로 6개 전공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터리 기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부산대·부경대·한국해양대와 학점교류형 수업은 지역 대학의 강점을 결합한 폭넓은 융합 학습을 수행한다. 나아가 배터리 분석실 구축 및 최신형 장비 도입으로 차세대 연구자 육성과 지역 기업 지원에도 기여할 준비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및 연구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미래산업을 위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다

동아대는 지역 기업과 함께 에너지 전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U&I+ Collaboration Model-너와 내가 함께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그 중심축에 수소 에너지테크와 이차전지 특성화를 배치했다. 이 모델은 학부·대학원·유학생을 아우르는 인재 양성과 산학공동 연구·대학 연구과제를 통한 기술 고도화, 기업협의체·재직자 직무교육·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 University Cluster & Industry Cluster



까지의 전주기 역량을, 바이오푸드 트랙은 기능성 소재 개발과 안전성·효능 검증, 제품화 중심의 실무 역량을, 디지털 헬스케어 트랙은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획과 알고리즘/플랫폼 개발, 인허가·보안 등 사업화 필수 역량을 중심으로 창업형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서 꿈을 펼치고, 그 기술이 다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의 중심에 바로 동아대가 있다. 부산의 새로운 물결(WAVE)을 만들어 갈 가장 강력한 동력, 동아대의 'RISE'를 기대한다.

‘영남권 최대’ 부동산대학원 고급 실무형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다

부동산학이 독립학문으로 부상하며 부동산 실무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부산의 개발·재생·항만·관광 등 복합적인 이슈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맞춤형 특성화 대학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동아대는 지난 2025년 부동산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부동산대학원’을 신설하고 2026년 2월, 두 번째 신입생을 모집했다.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영남권 최대, 총 150명)
* 매주 화·수 19:00~21:50 수업 진행

부동산투자전공(50명)	리츠, 펀드, 수익형 부동산 등 자산운용 실무 중심
부동산개발건설전공(50명)	도시개발, 건설관리 중심
부동산자산관리전공(50명)	자산평가, 임대관리, 포트폴리오 운용 등

이론과 실무의 ‘균형 교육’

부동산대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을 핵심 목표로 삼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실제 답사와 사례 연구로 실전 감각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교육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연결 △시민 대상 세미나 등 지역 부동산 정책과 현황 이해 등이 수업의 핵심이다. 특히 2025년 부산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세미나에 시민 250여 명이상이 참석하기도 했다.

다양한 실습과 ‘특별수업’

부동산대학원은 성인학습자 대상 4년제 대학정규과정을 제공한다. 화·수요일에 야간수업을 진행하고 주말이나 방학에는 정비사업 현장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현장 등 현장 방문 수업이 이뤄진다. 또 강의·사례분석·발표·리포트·토론과 같은 완결형 학습 사이클로 구조화된 특별수업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고 되짚어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분석, 개발 계획 수립, 자산관리 전략 등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컨설팅형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한다.

더 강화되는 실무교육

부동산대학원의 최우선 목표는 고급 실무형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히 이론 교육 및 현장 분석 능력 통합적 습득을 위해 부동산투자, 개발·건설, 자산관리 등 전공별 전문 교육으로 실무 역량과 현장 임장, 사례 중심 수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 대표부터 방송기자 등 다양한 지역 실무 리더들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정비사업리더 최고과정의 역량 강화 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 종합과정인 부동산투자리더 최고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지역의 미래를 읽고 도시개발과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갈 인재들의 요람. 부동산대학원의 성장을 기대한다.

미니 인터뷰

부동산대학원장 강정규 교수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 타이틀은 어떻게 얻게 되셨는지요?

우리나라 최초로 부동산학을 신설한 대학의 부동산학과 첫 입학생으로 석사 과정까지 마친 후 박사 과정이 처음 만들어진 대학에서 국내 1호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기업 부동산투자팀에서 근무하다가 대학 강단에 서게 됐어요. 부산광역시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건축정책, 투자 등의 심의위원 및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동아대와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전문가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지역 기반의 전문 부동산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대학원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전문가가 필요했던 동아대와, 부동산 분야 전문 교육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이론과 실마가 겸비된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 의지가 시너지를 얻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대학원 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동아대의 강력한 추진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신 것 자체가 큰 도전이자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은 부동산 분야의 고급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석사과정으로,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배우고 실전 감각을 체득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최고의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아대 로스쿨 개원 이래 '최다' 공직 합격자 배출



판사 1명



검사 7명




재판연구원 6명



2026년 검사, 로클릭 합격자들과 이해우(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총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선발시험 합격자 추이

2024~2025년	2년 연속 검사 합격자 각 4명 배출
2025년	로클릭 합격자 3명
2026년	판사 합격자 1명
	검사 합격자 7명
	로클릭 합격자 6명
총 14명	
(경력재판연구원 2명 포함)	




누적 변사 합격자

총 751명


(판사, 검사, 로클릭, 변호사)

3년, 시험 '기화'를 준비하는 시간



사법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검사 및 판사 임용이 결정됐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체제에서는 3년 동안 별도 준비 과정을 거쳐야 검사 임용 시험과 재판연구원 선발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변호사나 검사, 로클릭 등 법조 경력을 일정 이상 채우면 판사 선발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어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6년 판사·검사·재판연구원(로클릭) 임용 시험에서 1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개원 이래 최고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동아대 로스쿨은 지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변호사 287명·검사 19명·판사 1명·로클릭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이 합격했다.

연구원과 교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준비반

동아대 로스쿨은 2018년부터 검사 및 재판연구원 출신 실무교수들이 직접 지도하는 '검사 준비반'과 '재판연구원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도교수 주도로 진행되는 전문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후 2024년까지 검사 임용시험 합격자는 총 11명. 그중 9명이 준비반 출신이다.





이번에 공직 합격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해우 총장님께서 로스쿨을 적극 지원해 준 결과이자 우리 로스쿨의 지도 방침이 꽃을 피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 송관호 검사 준비반 지도교수

준비반 운영 이후 검사 및 재판연구원(로클릭) 선발시험 합격자 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중!

DONG-A
UNIVERSITY
LAW SCHOOL

2026년 합격 현황

 판사 선발	 검사 신규 임용 합격	 재판연구원 합격
이훈 9기	최연욱 12기 김기훈·김유리·서혜림·이다교·이유창·정우희 15기	류지인·윤건수·이승률·장채원 15기 심사임·양재성 12기
<p>이훈 동문 판사 선발 합격자</p> <p>동아대는 변호사 시험을 위한 수업 커리큘럼과 열람실 등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검사 및 로클릭 준비반 등도 활성화돼 있어요. 앞으로 동아대 로스쿨에서 더 많은 후배가 나오길 바랍니다. + 이훈 동문은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부산고등법원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했다.</p>	<p>김유리 동문 검사 합격자</p> <p>동아대 로스쿨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준 덕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감사해요.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과 총장님의 애정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공직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축하 자리도 마련해주셔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p>	<p>이다교 동문 검사 합격자</p> <p>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동안 학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부산과 동아대에 더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다교 동문은 동아대 석당인재학부를 졸업했다.</p>
<p>이승률 동문 로클릭 합격자</p> <p>공부할 수 있게 기회를 준 학교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과는 총장님, 교수님, 선배님들 도움 덕분이라 생각해요. 동아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후배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p>		

1 석당학술상·공로상·우수직원상 등 시상 개교 79주년 기념식 개최

2025년 10월 31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동아대 '개교 제7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선 '자랑스러운 동아인상'과 '석당학술상', '동아미래인재상', '공로상', '우수직원상', '30년 근속상', '20년 근속상' 등 부문에서 모두 37명이 표창을 받았다.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시상하는 석당 학술상의 영광은 산업공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이광식(응용생물공학과) 교수와 금융수학 및 응용확률통계학 분야를 중점 연구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설영수(정보수학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대학의 명예를 드높여 학교의 미래를 빛낼 학생에게 수여하는 '동아미래인재상'은 세계 정상급(Q1) SSCI 학술지에 단독 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크게 화제가 된 이임현(금융학과 2) 학생에게 수여됐다. 단일사업 규모로는 동아대 역대 최대(5년간 총 250억 원)인 '대학기초 연구소지원(G-LAMP) 사업' 선정에 기여한 정진웅(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와 신경중재치료의학 부문의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임상 실적을 인정받은 강명진(의학과) 교수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개교 79주년 기념표창 행사'

권혜민(교무과)·김정대(학생과)·오진환(총무과)·계민수(국제교류과)·송모란(정보전산과) 직원은 '우수직원상'을 받았고, 김학이(사학전공)·박상원(정보수학과)·조윤현(전기공학과)·강대성(전자공학과)·이상화(의예과)·권기항(컴퓨터공학과) 교수와 박재진 한림생활관장·박순우 자연과학대학 행정지원실장은 30년 근속상을, 김영선(한국어문학과)·조규판(교육학과)·김수정(사회복지학과)·이선우(응용생물공학과)·김상준(전자공학과)·최우용(산업경영공학과)·김종민(화학공학과)·서종환(산업디자인학과)·윤진호·이승철(의예과)·김정일·배우용·송영진·한성호(의학과)·주현욱(간호학과)·권한용(석당인재학부) 교수와 박미향(공과대학 행정지원실) 직원은 20년 근속상을 받았다.



'공로상'을 수상한 정진웅(맨 왼쪽)·강명진(맨 오른쪽) 교수와 이해우 총장



'석당학술상'을 수상한 이광식(맨 왼쪽)·설영수(맨 오른쪽) 교수와 이해우 총장



'우수직원상' 수상자들(왼쪽부터 권혜민, 김정대, 오진환, 이해우 총장, 계민수, 송모란)

이해우 총장은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동아대는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왔다"며 "성과 기반의 교원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역량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교육·연구 경쟁력 향상을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개교 80주년에는 지역민들과 더 소통하고 30만 동문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택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대학30과 RISE 사업 선정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모교가 앞으로 더 잘되도록 이해우 총장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부산은 희망이 있는 도시라고 믿는다. 부산이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도약하는 데에 모교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모교 발전을 위해 30만 동문을 대표해 무궁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2 박세철 (주)오리엔탈정공 회장, 박희덕 (주)팜젠사이언스 부회장 개교 79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박세철 (주)오리엔탈정공 회장 박희덕 (주)팜젠사이언스 부회장

동아대 '개교 79주년 기념식'에서 박세철 (주)오리엔탈정공 회장과 박희덕 (주)팜젠사이언스 부회장이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했다.

박세철 회장은 1987년 동아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오리엔탈정공에 입사,

부산사업소 공장장과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관리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부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4년 대표이사, 2021년 회장으로 취임했다. (주)오리엔탈정공은 지난 1980년 설립된 조선 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국내 조선기자재 업체 최초로 자체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 중이다.

박희덕 부회장은 1993년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주)팜젠사이언스에 입사한 이후 특수사업본부장, 생산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지난 2023년 부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경영환경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의사결정과 과감한 사업 확장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뒀고, 혁신적 리더십과 성과를 바탕으로 (주)팜젠사이언스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견제약사'로 이끌며 국민 건강 진흥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지역과 청년, 일의 미래' 주제 동문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특강 개최

지난해 11월 5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청춘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동의 인문학: 지역과 청년,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김영훈 장관은 "우리 모두는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한다. 일은 사람이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다"며 "정부와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정·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경쟁력 강화 △AI,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노동자 공존을 위한 사회적 대화 촉진,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핵심 추진 과제를 소개했다. 특히 이날 동아대 초청 특강에서 김 장관은 청년들에게 인턴 및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청년고용정책(국민취업지원제도·미래내일일경험·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도 소개했다.

동아대 87학번인 김영훈 장관은 지난 1992년부터 철도청에 입사해 30여 년간 철도 기관사로 일했다. 이후 지난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을 지내면서 본격적인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에 당선됐으며,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 정계에 입문한 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맡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모교 동아대에서 특강하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장관과 특강 참석자들

4

‘글로벌대학30 통합산단 2.0’ 출범 지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미래비전 선포

동아대가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 ‘통합산단 2.0’ 출범과 함께 지산학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의 대표 브랜드인 ‘통합산단 2.0’은 지역 사립 대학이 ‘규모의 경제 협력체계(연합)’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운영 및 성과모델 확산’ 목표를 갖고 출범한 조직이다. 특히 산학협력단의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 눈길을 끈다.

통합산단 2.0은 기존 산단의 한계 극복을 위한 혁신 수익모델을 제안하고 실증하게 된다. 즉, 검증된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하는 ‘프랜차이즈’, 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마켓부스팅’, 성과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스노우볼링’ 등 산학협력 매출 증대(2,000억)를 위한 혁신적 수익모델 기반을 구축한다.

또 통합산단의 실질적인 실행 네트워크인 ‘기술가치창출브랜드’ 지정식을 통해 R&D 분야 12개, 경영·사업화 지원(IP) 분야 2개, 경영·사업화 지원(Start up) 분야 2개, 경영·사업화 지원(Service) 분야 7개, Academy 분야 2개 등 총 25개 브랜드가 소개됐다.

통합산단 2.0의 또 하나 주요한 특징은 교수와 연구실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이 자·산·학·생 4자 협력 모델의 ‘능동적 플레이어’로 참여해 혁신을 이끌어가는 참여형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대학은 학생 서포터즈를 선발, ‘학생 참여형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서포터즈는 ‘테크비즈’와 ‘마케팅’ 두 개 부문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테크비즈 부문은 AI 기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 사업을 지원하고, 마케팅 부문은 통합산단의 성과 확산과 대외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 통합산단 2.0 비전 선포식 모습



‘글로벌대학30 통합산단 2.0’ 출범-지산학협력 성과 공유 및 미래비전 선포식’ 참석자들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산단 2.0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 동아대와 동서대 30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들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산학협력 성과 확산과 기술사업화 혁신의 주체로 현장에서 뛰게 된다.



통합산단 2.0 기금조성 약정식 모습

5

글로벌 연합대학 1대1대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 출범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 ‘1:1: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 제1차 회의’ 참석자들

동아대는 ‘1:1: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를 출범, 12월 8일 ‘1:1: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1:1:1 지산학 공동전략협의체’는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 지역 산업계, 지자체 및 출연기관 등이 4대 특화분야 6개 협의체에 대해 1:1:1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공동전략 수립·Field 캠퍼스 조성·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해 ‘부산시-대학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거버넌스 기구다. 4대 특화분야 6개 협의체는 △수소에너지 △전력반도체 △휴먼케어 △첨단콘텐츠 △융합디자인 △B-헤리티지 협의체이며 지자체, 특화분야 유관 산업체, 글로벌 연합대학 특화분야 센터장 등 지자체-산업체-대학 1:1:1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대학-산업계가 공동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분야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6

교육혁신 성과 한눈에 확인 ‘글로벌 연합대학 교육혁신 포럼’ 개최

동아대가 2025 교육혁신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해 9월 18일 열린 포럼은 특히 ‘Field 연합전공’의 비전과 성과를 중심으로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교육혁신 현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글로벌 연합전공은 다양한 필드 캠퍼스를 기반으로 △수소에너지전공 △전력반도체전공 △첨단콘텐츠전공 △융합디자인전공 등 4개 전공 학생들이 모듈을 이수했거나 이수를 앞두고 있으며, △휴먼메타케어전공 △헤리티지콘텐츠전공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해우 동아-동서 글로벌 연합대학 총장은 “이번 포럼은 출범 1년을 맞은 연합대학의 성과를 함께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



2025 교육혁신포럼 참석자들

리”라며 “연합대학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중심 필드 교육’이고 그 핵심인 ‘필드 캠퍼스’는 사회의 요구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연합대학의 대표 혁신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환(수소에너지전공), 박해성(전력반도체전공), 김대호(첨단콘텐츠전공), 안형주(융합디자인전공) 학생 등 4명이 대표로 연합대학 이수증과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심대용 동아대 교수, 유승진 동서대 교수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7

‘생물소재’, ‘미세먼지관리’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최종 선정

동아대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육성사업’ 두 분야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녹색산업의 혁신성장 및 녹색산업을 선도할 융합형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간 녹색융합기술 분야에 특화된 석사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생 학업장려금,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경비, 인턴십 프로그램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비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탈플라스틱 △녹색금융 △미세먼지관리 △녹색복원 △생물소재 △통합환경관리 등 6개 분야 17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동아대는 ‘생물소재’와 ‘미세먼지관리’ 두 분야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100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생물소재 분야에서는 정영수(바이오소재공학과) 교수가 사업책임자로 총사업비 66억여 원을 지원받아 첨단기술을 활용해 생물소재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형 고급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미세먼지관리 분야에서는 최현준(환경안전전공) 교수가 책임자로 총사업비 39억여 원을 지원받아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 관리 역량을 보유한 실무형 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8

환경부·고용노동부 공동 추진 환경 분야 특성화선도대학 및 첨단·전략산업 핵심인력 양성사업 선정

동아대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2025학년도 환경 분야 특성화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아대는 앞으로 3년간 연간 약 4억 원씩 총 12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학제 간 융합연구, 현장 밀착형 교육,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5학년도 환경 분야 특성화선도대학 육성사업’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에코업(Eco-up)’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데 이 산업은 앞으로 5년간 약 7만 7,000명의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다. ‘에코업’은 환경 관리·보전, 환경기술 및 장치, 재활용 산업 등 녹색산업 전반을 포괄한다.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학장 김두현)은 ‘바이오소재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스마트그린자원학과’가 참여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정규 교

과과정은 물론 직무역량을 높이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인프라를 운영해 산업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앞서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은 환경부의 ‘환경 분야 특성화대학원’ 사업에도 선정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5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대학원 과정에서는 고급 전문인력, 학부 과정에서는 중급 실무인력 양성이라는 이중 구조의 전문 인재 양성 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9 5년간 250억 원 지원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선정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동아대가 교육부 주관 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 Global-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동아대는 앞으로 5년간 총 250억 원(연 50억 원)을 지원 받아 미래 원자과학 기반의 양자화학·의료 융합 연구의 국가적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은 동아대 자연과학대학의 기초과학 연구력을 집약한 결과로, 정진웅(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장이

'G-LAMP 단장'을 맡아 연구소를 이끌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리·생명과학·의학 분야 등 기초학문을 아우르는 융합 연구력이 높게 평가되며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동아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자과학혁신연구소(Innovation Center for Atomic Science, 소장 강도영)'를 중심으로 차세대 정밀 진단·치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한 원자과학 기반 연구 거점으로, 국가적 연구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10 법무부 주관
K-STAR 비자 트랙 사업 선정



동아대 송강직(왼쪽) 대학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동아대가 법무부 'K-STAR 비자 트랙(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K-STAR 비자 트랙' 사업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귀화 절차를 간소화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정주를 촉진하는 제도다. 해당 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은 총장 추천서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거주(F-2)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F-2 비자로 3년간 체류 후 영주권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부터 카이스트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이를 확대·개편해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 중 우수 대학을 신규 선정했으며, 동아대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대는 이번 K-STAR 비자 트랙 선정을 통해 석·박사급 외국인 연구자의 지역 정주와 장기 연구 활동을 지원할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획득

동아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을 획득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인간대상연구·인체 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조사·감독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아대는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수행한 평가

에서 기관 설치와 독립성, 기관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역할 및 기능 등 5개 항목과 40개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 서면·현장·종합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인증을 획득했으며, 인증 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 25일까지 3년간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보건의로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신규 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 기관 내 자율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역량을 공식적



이해우(왼쪽) 총장과 김현준 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장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획득 기념 촬영

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제적 수준의 생명윤리 환경 조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동아대 GKS 장학생 졸업식 기념촬영

12 GKS(정부초청 장학제도)
대학원 특화트랙 수학대학 선정

동아대가 국립국제교육원의 '2026~2028 GKS 대학원 특화트랙 수학대학'에 선정됐다.

동아대는 지금까지 일반 GKS 과정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 사업 선정으로 'GKS R&D 과정'을 운영하게 됐으며, 앞서 지난 5월 학부과정(GKS-UIC, 산학협력 수학대학) 선정에 이어 이번 대학원 사업에도 선정됨으로써 GKS 학부(UIC) 및 대학원(R&D)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

'GKS 대학원 특화트랙 수학대학'은 첨단·신산업과 관련된 이공계 학과 중 연구개발(R&D)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산업체 등과 연계한 취업·정주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적이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일반 수업뿐만 아니라 진로 및 취업 지원도 병행하는 트랙이다. 동아대는 건강과학과와 컴퓨터공학 과가 이 사업에 선정됐으며 신규 대학 중에선 최대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들 학과에서 해마다 각 15명씩 연간 총 30명, 3년간 총 90명의 R&D과정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GKS 수학대학 우수대학 선정

동아대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장학사업) 운영 대학 서면 점검 결과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서면 평가는 지난 2024년 운영된 대학원과 학부 과정 GKS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국 88개 학부 및 대학원 GKS 운영 대학 중 동아대를 포함해 9개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동아대 GKS 장학생 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총 123명의 GKS 장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동아대는 장학생들의 조기 정착과 정주 및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 중이다. 이러한 동아대의 지원에 힘입어 GKS 장학생들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각종 저널 등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아대는 '2026~2028년 GKS 산학협력

(UIC) 수학대학'에도 선정, '식품영양학과'와 '의약생명공학과'에서 해마다 각각 5명씩 3년간 총 30명의 우수 외국인 학부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동아대 GKS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석자들

13 '세계 속의 동아' 국제교류 협정 체결 활발



이해우 총장과 키스 하야시 하와이주 교육감 등 협정체결식 참석자들 동아대와 하와이대학 웨스트오하우 협정체결식 참석자들



동아대와 태국한국교육원, 부산라이프혁신원 등 간담회 참석자들

외국인 유학생 2,100명 시대에 접어들어 동아대가 '세계 속의 동아'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동아대는 2023년부터 하와이 지역과 교류 물꼬를 트고 해마다 현지 교육청 및 교육기관, 고등학교 관계자를 꾸준히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해우 총장 등 일행이 직접 하와이를 방문해 입학설명회 등 적극 교류 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9월 30일엔 키스 하야시(Keith Hayashi) 하와이주 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이 승학캠퍼스를 찾아 이해우 총장 등을 만나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투어 방문을 통해 산업체와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응용과학, 경영, 미디어, 교육대학 등 9개 단과대학이 있고 다문화 교육과 지역사회 기반 학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립 하와이대학 웨스트오하우(University of Hawaii-West O'ahu)와도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해 학생 및 교원 교류와 공동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9일엔 태국과 부산지역 중등학교·대학교들이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지 다양한 모델과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교육부 국장·과장 등 교육행정가와 태국 중등학교 교장단, 그리고 부산지역 9개 대학·전문대학 국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국-부산지역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국제교류 협력 간담회'가 개최됐다.

또 중국 하남성 정저우시 소재의 정주대학, 하남대학, 하남제 경정법대학 등 지역 내 대표 3개 대학과 국제교류협력 협정을 맺었으며, 중국 웨이팡대학(Weifang University, 潍坊学院)과 우호교류 협정을, 중국 경덕진도자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동아대는 중국 현지 동문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강화를 통해 앞으로 유학생 유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동문들의 현지 사회 진출, 산학 연계 프로젝트 참여 확장, 공동 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 증진 등 글로벌 캠퍼스 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학과 차원에서도 RISE 사업 등을 통해 국제교류가 한층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패션디자인학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창업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기획된 '중국 상하이 글로벌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학부생 10명 등 참가자들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학습하고 패션 산업과 기술 융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실질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



동아대와 중국 하남대 관계자들



조규판(오른쪽) 교수와 왕성단 중국 웨이팡대 부총장



이해우 총장(오른쪽)과 중국 경덕진도자대학 후 인자오 부총장



동아대 패션디자인학과 '중국 상하이 글로벌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의 중국 양사범대와 섬서사범대, 위남사범대 방문 교류 활동 모습



중국 선전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AI 서머스쿨' 참가자들

산업디자인학과는 지난해 11월 중국 중국 함양사범대와 섬서사범대, 위남사범대 등을 방문, 'Design Pivot Asia(아시아 디자인 글로벌 교류·연계 프로그램)'를 실시, 국제적 네트워크와 국제공동연구 등 협업 기반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혁신센터는 중국 선전대학교에서 8박 9일간 '2025 글로벌 AI 서머스쿨'을 개최, 동아대 학부생 15명과 선전대 학부생 17명 등 총 32명이 참가해 최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프로그램 성과는 국제대회 및 학술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팀은 중국 국제 대학생 혁신대회 출전을 준비 중이며 3개 팀은 국제 학술대회 논문 발표를 목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14 인재 양성·산업 활성화 위해 지역사회와 탄탄한 협력 기반 마련



지역산업 맞춤형 글로벌 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식 참석자들 동아대와 (사)부산축제조직위원회 업무협약식 참석자들

동아대가 지역사회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탄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지역산업 맞춤형 글로벌 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시작으로 지역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공학 인재'를 양성,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선다.

또 (사)부산축제조직위원회와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지역 문화관광축제 분야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학생 및 유학생 대상 인턴십·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축제 국제화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대와 동아대병원은 BNK부산은행과 '동반성장 및 상생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매출채권 팩토링'을 통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임직원 및 외국인 학생 우대 금융 서비스 지원 등 동반성장 및 상생금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동아대-동아대병원-BNK부산은행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자들 동아대서정일 교수,한국주택금융공사유호재 사업인프라본부장, 부산대 유영환 교수

소프트웨어대학은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대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공동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혁신센터는 부산 사하구청과 'SW전문·융합 인재 양성 및 연구 기술개발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특히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실제 사회의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와 부산 사하구청 업무협약식 참석자들

15 해외 대학 학부 - 동아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활약상 눈길

지난 2009년 3월 개원한 동아대 로스쿨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인', '전문성 있는 법조인',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국제 상거래법'을 특성화 영역으로 하며 로스쿨 지망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해외 대학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된 문운을 주목할 만하다. 해외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기수는 특히 7기와 8기에 많이 포진해 있다.



박성하 변호사 (덴톤스리(Dentons Lee) 법률사무소)

박성하 변호사(7기)는 독일에서 초·중·고 졸업 후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동아대 로스쿨에 입학, 현재 글로벌 로펌 덴톤스(Dentons)의 서울 사무소인 덴톤스리(Dentons Lee) 법률사무소에 몸담고 있다.



하유준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태광)

하유준 변호사(8기)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졸업하고 동아대 로스쿨을 거쳐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피터엔김(Peter & Kim)의 서울 및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약 4년간 경력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태광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미국 에모리대(Emory University)를 졸업한 윤세환(8기) 변호사 또한 윤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서초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정법률사무소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영국 법정변호사(Barrister)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병주 변호사(9기)도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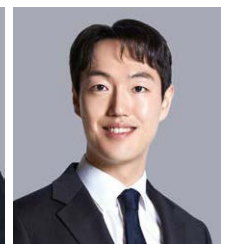
북경대학교(北京大學) 법학과를 졸업한 임두현 변호사(11기)는 법무법인(유한) 한별, 법무법인(유한) 민, 그리고 특허법률사무소에서의 경험과 7년간의 중국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최근 법률사무소 복두칠성을 개소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세환 대표변호사 (윤정 법률사무소)



이병주 변호사 (Greenberg Traurig LLP)



임두현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복두칠성)

16 K-MOOC 블루리본 강좌 선정

동아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연차평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하는 ‘블루리본 강좌’에 이름을 올렸다.

‘블루리본 강좌’로 선정된 강의는 이국환(한국어 문학과) 교수의 ‘삶을 버티게 하는 가치들’로, 체계적인 강의 설계와 뛰어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역량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 강좌는 2022년 연차평가에서도 블루리본 강좌로 선정된 바 있다.

2024년 K-MOOC 연차평가에는 총 1,465개 강좌

가 포함됐으며, 이 중 블루리본 강좌로 선정된 강좌는 전국 30개(2%)에 불과하다. 특히 협약 종료·자율참여 강좌는 1,038개 중 단 15개(1.4%)만이 선정, 동아대 강좌가 그중 하나로 채택되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MOOC 연차 평가는 강좌 운영의 충실성, 학습자 만족도, 운영 실적 등 정량 지표와 함께 강좌 질 관리, 교육 효과성, 학문 분야 간 균형성 등 정성 지표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동아대는 이번 선정으로 블루리본 강좌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동아대 이국환 교수의 'K-MOOC' 강좌 '삶을 버티게 하는 가치들'

17 학군단 부산경남 최우수 대학 선정



2025년 6월 열린 동아대 학군단 2025년 하계입영훈련 출정식 모습

전통의 명문 동아대 학군단(ROTC)이 국방부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9개 대학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학군 사관후보생 설치대학 평가’ 결과 군권 역별 최우수 대학 12곳이 선정됐으며, 동아대는 부산·경남 최우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대학에는 국방부장관상이 수여된다.

동아대 학군단은 대학·군 간 운영협약 체결과 홈페이지 개편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하고 탐방비, 교육장비비품 등 지원을 확대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61년 전국 최초로 창설된 학군단 중 하나인 동아대 ROTC는 남영신(예비역 대장, 교육학과 81학번·학군 23기) 전 육군참모총장 등 6명의 장군을 비롯해 4,500여 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특히 동아대 학군단은 국방부 평가에서 최우수 학군단에 통산 11번 선정됐고, 교육사열 우승 11회, 하계 입영훈련 전국 1위 8회, 입관성적 1위 3회 차지 등 명문 학군단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18 동아대 석당박물관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우수관 선정



이승혜(가운데) 동아대 석당박물관장 수상 기념 촬영

석당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우수관에 선정됐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석당박물관은 2025년 ‘백년청사 유니버스’를 운영, 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47차례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백년청사 나눔 스쿨’은 장애인 대상 방문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 지역 문화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특히 동아대 예비 큐레이터 서포터즈 ‘동아뮤즈’가 보조강사로 참여해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정서적·사회적 통합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틴틴 디지털 백년청사’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학생 대상 미션형 교육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학과가 교차하는 대학의 특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동아대 전공멘토단 ‘고온’과 협업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19 동아대 교수들 정부 표창 및 학술상 수상 줄이어

동아대 교수들이 정부 표창과 학회 학술상 수상 등으로 교육 및 연구 우수성을 증명했다.



김점수 교수, 유정욱(오른쪽에서 두 번째) 교수, 김병권 교수

화학공학과 김점수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간호대학 유정욱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병권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광역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응용생물공학과 신용호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건강관리학과 김경화 교수는 ‘2025년 한국인체자원사업(KBP) 심포지엄’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 식품생명공학과 서권일 교수는 ‘2025년 제46차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미래에너지공학전공 차종문 교수는 ‘2025 추계자원원

합학술대회 및 한국자원공학회 정기총회’에서 각각 학술상을 받았다.

체육학과 배주용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대회 ‘South-East Asia Physical Activity Conference 2025’에서 Best Poster Presentation을 수상했으며, 경영정보학과 조용복 교수팀(글로벌금융연구소)은 ‘2025년 한국산업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과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패션디자인학과 이신영 교수 연구팀은 ‘2025 SFTI-CMU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고, 경영학과 류환전 박사과정생, 천상은 박사졸업생과 박희태 교수는 ‘2025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KIRD(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신용호(오른쪽) 교수, 김경화(오른쪽) 교수, 서권일(오른쪽) 교수, 차종문(오른쪽) 교수



체육학과 배주용 교수 연구팀, 경영정보학과 조용복 교수팀, 패션디자인학과 이신영 교수 연구팀, 경영학과 박희태 교수팀

20 동아대 교수들 세계적 학술지에 우수한 연구 결과 발표



윤진호 교수, 강효 교수, 사정훈 교수, 김석호 교수, 김선재 박사과정생

동아대 교수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로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식품영양학과 전미라 교수 연구팀은 국제 저명 학술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IF 6.3, 상위 5.9%)’에 두 편의 논문을 연속 게재했다. 의과대학 윤진호 교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이희승 박사와 공동 연구팀으로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실험 및 분자의학)’에 연구 결과를 온라인 게재했다. 화학공학과(BK21 FOUR) 강효·사정훈 교수 연구팀이 회수 및 재사용 가능한 ‘이온성 액체 기반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첨가제’를 개발, 연구 성과가 화학공학 전문 국제학술지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IF: 9.0, 화학공학 연구 분야 상위 9.7%)’에 게재됐다.



식품영양학과 전미라 교수 연구팀

의약생명공학과 김석호 교수팀은 의학 전문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Hematology & Oncology’에 논문을 게재하고 ‘한빛사 추천논문’에도 선정됐다.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김선재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전동산)은 신호처리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Signal Processing(IEEE JSTSP)’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21 동아대 대학원생들 한국연구재단 연구장려금 지원 선정 등 성과

동아대 대학원생들이 한국연구재단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우수 포스터상도 받는 등 우수한 연구력을 인정 받았다.

컴퓨터공학과 석·박사과정생 6명이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5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동아대 일반대학원 컴퓨터공학과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석·박사과정 지원사업에서 6명이 신규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6명이 선정되는 등 최근 2년간 총 12명이 이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화학공학과(BK21 동남권 정착형 초정밀 화학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연구단) 김태홍, 정민욱 석사과정생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환경공학과 박지은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최현준)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태권도학과 이용국 교수 연구팀(김태훈 박사수료생·이대훈 교수)은 '2025년 대한무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핵심 요인 우선순위 분석' 논문으로 학술발표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화학공학과 공동형 박사과정생(지도교수 문현열)은 'IMID 2025(The 25th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에서 현장우수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받았다.

생명자원과학대학 스마트그린자원학과 천연기능성물질연구실(이진환 교수) 석사과정생들은 '생명자원 내 기능성물질 및 환경변화에 따른 함량 규명'과 '신규 기능성물질·효능 검증'으로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회 발표상도 수상했다.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오티م 켈빈 케네디(Otim kelvin ke



김태홍, 정민욱, 박지은 석사과정생, 공동형 박사과정생



전세현, 박동현, 고은정, 정예리 석사과정생



태권도학과 이용국(맨 왼쪽) 교수, 김태훈(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사수료생, 이대훈(맨 오른쪽) 교수

오티م 켈빈 케네디 석사과정생

nedy) 석사과정생(지도교수 건설시스템공학과 전동호 교수)은 토목공학 분야 상위 5% SCI 저널인 'Journal of Building Engineering(IF=7.4)'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22 동아대 학생들 각종 대회에서 1등 상 차지 활약

동아대 학생들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1등 상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정보수학과 강민준·공민규·김도현·김현아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지난해 11월 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에서 열린 '2025 DX Camp' 정책제안 트랙에서 '대상(부산광역시상)'을 받았으며,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부산광역시의회 주최·21세기정치학회 주관 '2025년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2년 연속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사회학전공 4학년 김미나, 이민채 학생이 '2025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학부생 특별세션'에서 총 7개의 대학 8팀 중 대상을 수상했으며, 동남권 RISE사업에 참여 중인 10개 대학 학생 팀이 참가한 '초광역 글로벌 창업 노마드 캠프 &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동아대 화학공학과 창업동아리 'MEB'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또 금융투자동아리 'AFTT(선진금융연구회)'에서 활동 중인 경영학과와 금융학과 학생 팀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한 '제7회 대학생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사회학과를 졸업한 정유진 전 동아대학보(다우미디어센터 학보편집국) 편집국장이 '2025 대학언론 우수보도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정보수학과 학생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왼쪽부터 사회학과 권혜원 학과장, 이민채, 김미나 학생

화학공학과 'MEB'팀



왼쪽부터 엄정식, 박준명, 이석원, 이미르 학생

정유진(오른쪽) 전 동아대학보 편집국장

23 스포츠단 선수들 전국체전 맹활약

동아대 스포츠단 선수들이 전국체전을 비롯한 대회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총 28개의 메달을 땀다. 이번 전국체전에 육상, 레슬링, 태권도, 씨름, 수영 등 총 5개 종목에 55명의 선수가 출전, 육상과 레슬링, 태권도, 씨름에서 9개의 금메달 비롯해 은 4개, 동 15개를 획득했다.

육상부 정안성 선수는 남대부 400m 허들, 신서연 선수는 여대부 멀리뛰기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정안성·윤여준·전유민 선수가 남대부 1600m 릴레이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남대부 400m 허들에서 51초15로 결승선을 가장 빨리 통과한 정안성 선수는 이번 대회 대학부와 일반부를 통틀어 최고 기록을 남겼다.

레슬링부 채승훈 선수는 남대부 자유형 97kg급에서 금메달을 따 부산에 이번 대회 레슬링 첫 금메달을 안겼고, 노병환 선수는 70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태권도에서는 권미서 선수가 여대부 +73kg급, 김효혁 선수와 류진 선수가 각각 남대부 -68kg, -74kg급에서 시상대 맨 위에 섰다.

한편, 씨름부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22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시원·정성재·김성국·박성범·김민규·성태용·신건 선수가 출전해 준결승에서 경남대를 4대2로 꺾고 결승에 진출, 전주



육상부 황미영(앞줄 가운데) 감독과 선수들



태권도학과 교수들과 태권도부 코치진, 선수들



권명수(왼쪽에서 두 번째) 스포츠지원과장과 레슬링부 선수들



씨름부 하성우(앞줄 가운데) 감독과 씨름부 선수들

대를 4대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용사급(95kg 이하) 김민규 선수는 전국체전 우승에 이어 대회에서도 개인전 금메달 하나를 더 추가, 개인전 시즌 7관왕(회장이·시도대학·중평인삼배·구례대학장사·삼척이사부장군배·전국체전·학산김성률장사배)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동아대 씨름부는 하성우 감독 부임 이후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으며, 하 감독은 이 대회에서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동아대 씨름부 하성우(가운데) 감독, 김민규(오른쪽에서 두 번째) 선수

24 동아대 출신 김용수 장군, 육군 '소장' 진급

사회체육학과 91학번이자 학군단(ROTC) 33기 출신인 김용수 준장이 육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김용수 장군은 지난 1995년 보병 소위로 임관, 30여 년간 'GOP 대대장', '작전사령부 부대훈련계획장교', '연대장 및 사단 참모장', '작전사령부 검열과장 및 부대훈련과장', '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 등 야전부대 지휘관과 교육훈련, 작전 관련 직책을 주로 역임했다. 2024년엔 동아대 총동문회 창립 75주년 기념 '동문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용수 장군

2025학년도 교육 업적 우수 교수 영광의 얼굴들

성과 기반의 교원 평가 체계,
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교육업적 최우수 교수상 수상 ① 이론적 지식에 실무 감각을 더하다



▪ Thank-You Speech ▪

훌륭한 교수님들과 행정 선생님들의 지원과 헌신에 기쁜 마음도 크지만, 그 무게도 깊이 느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경명대학 국제무역학과 **신성호** 교수
교육 분야
물류학의 이해, 국제물류운송론, 국제물류전략론

동아대는 학생이 가장 큰 자람이자 힘인 곳이에요.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을 볼 때 마다 늘 대견하고 감동받게 됩니다. 또 강의 중 놓쳤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점을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자주 느껴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며 진심이 전해지는 교육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육업적 최우수 교수상 수상 ② 연구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하다



▪ Thank-You Speech ▪

부족한 제가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상을 받게 돼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김점수** 교수
교육 분야
배터리 특성화 분야

모교 출신 교수로서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을 직접 가르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0여 년 전 동아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가 유학 생활을 하며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제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시기를 먼저 지나온 사람으로서, 완벽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작은 가이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보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교육업적 최우수 교수상 수상 ③ 통합인재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다



▪ Thank-You Speech ▪

처음 시행되는 교육업적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상식을 갖춘 교육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탐구하고 성찰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오연** 교수
교육 분야
임상영양학(clinical nutrition)

동아대는 학교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대학30과 RISE 사업 선정 등 굵직한 혁신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구성원으로서 기대가 큼니다. 특히 동아대는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스스로가 찾아보고 노력하는 만큼 다각도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25학년도 연구 업적 우수 교수 영광의 얼굴들

맞춤형 역량 지원 강화,
연구 경쟁력을 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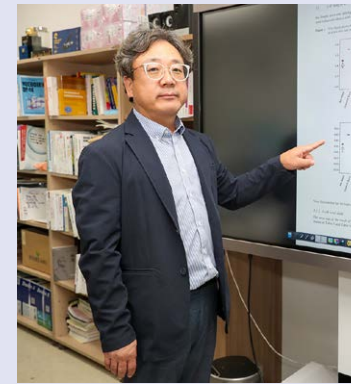
Kim Sang Jin

Jo Wan Seop

Son Min Guk

연구업적 최우수 교수상 수상 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만든다



▪ Thank-You Speech ▪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함께 연구를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회와 학문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김상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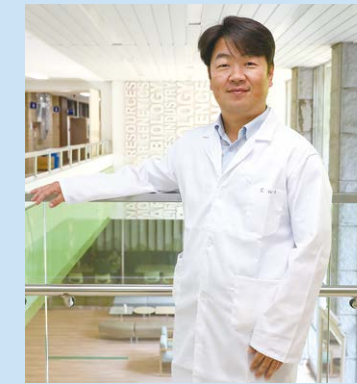
연구 분야

빅데이터분석과 최적의 인공지능 모델 구축 및 응용

우리 대학은 연구와 교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역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과제를 꾸준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다시 새로운 연구와 교육에 접목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과제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선순환의 흐름이 이번 연구업적 최우수상으로 이어진 가장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연구업적 최우수 교수상 수상 ②

안전한 생활 환경의 기준을 세우다



▪ Thank-You Speech ▪

연구 성과가 개인의 노력이 아닌 협력과 소통의 결실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상은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연구팀 모두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문적 진보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연구로 동아대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과학대학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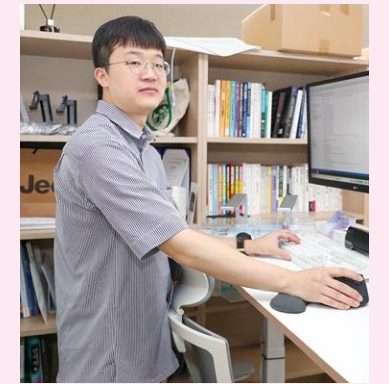
연구 분야

나노물질의 특성 연구

우리 대학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시수 감면과 같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학생들과 동료 교수진, 국내 여러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제 연구를 더욱 확장하는 든든한 토대입니다. 이것이 연구자로서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업적 최우수 교수상 수상 ③

사회의 높은 건강 수준에 기여하다



▪ Thank-You Speech ▪

이번 수상은 제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저희 PILL 연구실, COMEIN 동아리, 동아대 의과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도 함께해 준 학생들, 동료 연구자들, 가족과 동아대의 든든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손민국 교수

연구 분야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cs)

동아대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학교입니다. 연구 주제 선택·추진이 비교적 자유적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연구의 실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정적인 학교의 연구 인프라와 지원 체계는 연구의 지속·확장에 든든한 힘이 되고요. 수업 중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신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CEO가 찾은
성공의 의미



Park Se-cheol

조선기자재
국산화라는
꿈을 실현하고
나눔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다

(주)오리엔탈정공 박세철 회장 / 기계공학과 83학번

Q. 동아대 개교 79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아인’ 상을 수상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고 자랑스러운’ 마음입니다. 동아대 출신 중에는 사회 각지에서 자기 몫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제가 이 상을 받게 돼 부담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삶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신 의미라 생각하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은 ‘앞으로도 사회 활동을 해달라’는 격려와 당부라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동아인’에 걸맞게 살아가겠습니다.

Q. 지난해 11월에는 ‘2024학년도 공과대학 콜로키움’에서 특강으로 후배들을 만나셨습니다. 강연자로 서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학교에서 이전부터 계속 강의를 요청하셨어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 나이 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자 싶어 서게 됐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주)오리엔탈정공의 기술을 설명하거나 회사의 성공담을 들려주기보다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성공을 말해 주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회공헌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부터 회사에서 ‘마라톤 기부’라는 사회 기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1~10km까지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달리고 1km당 10만 원씩 회사가 기부하는 행사인데, 작년 1회에는 약 5,650만 원을, 올해는 7,04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Q. 2024년에 학교에도 발전기금을 기부하셨어요.

제가 성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도 있었지만 그 노력은 하나의 작은 요소일 뿐 제가 살아오며 만났던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나의 노력은 하나

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아대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기본 바탕이자 나를 키워준 고마운 모교예요. 한때는 회사가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산업에 호황이 일면서 회사도 반석에 다시 올라서며 기부할 수 있게 돼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Q. 동아대 출신 사업가로서 동문 네트워크에 대한 자부심도 남다르실 듯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대학 총 세 곳을 다녔어요. 제일 첫 대학에서 수학 후 기관사로 5년을 일했는데, 당시 수입품 일색이었던 선박 기자재를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28살에 동아대 기계공학과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부산사업소 공장장을 할 때 타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했고요. 덕분에 현재 각 대학 동문회에 골고루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아대 네트워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해요. 그 끈끈함이 남다른데다. 특히 부산 상공계에서 동아대 출신이신 분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세요. 동아대라는 인연의 힘이 굉장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Q.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자신의 길을 걸어갈 후배들에게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커리어를 작은 데서 시작하든 큰 데서 시작하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회사의 규모나 월급으로 내가 일할 곳을 정하기보다 정말로 본인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오리엔탈정공은 2025년 부산시가 선정한 ‘청골(청년이 끌리는)기업’이기도 해요. 저 역시 앞으로도 우리 회사가 청년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놀라게 한 스물한 살의 청년



단독 저자로 세계 최상위 학술지에 이름을 올리다

Lee Im-hyun



Finance Research Letters, 「Calendar-based clustering of weekly extremes: Empirical failure of stochastic models」

“연구 결과로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 나의 꿈”

2025 동아미래인재상 수상자 이임현 / 금융학과 24학번

Q. 먼저 축하드립니다. 논문 게재 소식이 알려진 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제안 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셨어요.

저는 이 일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만에 빠질 수도 있고, 학업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언론 인터뷰나 방송 출연은 정중히 사양하고 있습니다.

Q. 가족들이나 친구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가족들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을 느끼진 않았는지 걱정도 해주시고요. 친구들은 별 반응 없이 저를 대합니다. 덕분에 편안하고 부담 없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어요.

Q. 보통 대학교 2학년생이면 전공수업을 한창 따라갈 시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연구 분야에 관심있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막연히 ‘큰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용돈을 모아 넣은 계좌를 수십 번 날리는 경험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 내내 트레이딩에 몰입했어요.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트레이딩 전략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학습했는데, 제가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왜’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으며, 정확한 근원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컸어요.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을 찾던 것이 연구 주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논문을 쓰고, 학술지에 게재 요청을 하고, 심사에 통과해서 실제 게재까지. 학부생 신분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원고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거나 게재가 결정되지 않아요. 원고가 심사 과정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자의 심사 요청 수락으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자들은 크게 수락, 소폭 수정, 대폭 수정, 그리고 거절 추천과 함께 원고에 대한 주심 보고서(referee report)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요. 보통 원고가 소폭 수정됐고 그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편

집위원회는 추가 심사 의뢰 없이 원고 게재를 수락하며, 비로소 출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원고가 바로 수락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연구가 틀렸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루 중 대부분을 수업이 아닌 일에 몰입하고 있어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 가족에 대한 죄책감, 생활 습관 붕괴 등을 겪어야 했어요. 때문에 ‘이걸 노력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전 여전히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경험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고 저 또한 한 걸음 더 성숙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입니다.

Q. 동아대 학생으로서 동아대의 장점을 꼽는다면?

학교에 다닌 지난 2년 간의 모든 순간이 제 기억에 고루 남아있어요. 특별한 하나를 꼽을 수 없을 정도로요. 특히 우리 학교에는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진리 탐구와 애정으로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Q. 이번 논문 게재를 통해 감사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를 언제나 아껴 준 사랑하는 가족들께, 덕담과 격려·가르침·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며 도와주신 이상원 교수님을 포함한 존경하는 스승들께, 항상 의지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논문에 대한 신뢰를 보내 주시고 배려해주신 Jonathan A. Batten 교수님께, 함께 배우고 성장한 사랑하는 학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곁에 있어 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큰 틀에서는 수학에 익숙해진 다음 시장 미시구조에 관한 지식과 연구를 더 쌓고 유의미한 정량 전략을 개발하고 싶어요. 이를 수단으로 제 어린 마음에 담아 둔 방법을 통해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미래를 향한 시간

2025학년도 전국 최대 규모 기업·채용정보 박람회

동아대와 고용노동부 공동 주최로 2025학년도 기업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렸다. 대기업·공기업·금융권 등 5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는 2,000여 명이 참가해 풍성한 채용 정보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상담, 영문·국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메이크업, 캐리커처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운영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25.9.16.(화)



기업·채용박람회 브이로그 영상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 #채용상담 #취업준비

#진로탐색 #취준생 #이미지컨설팅



2025 JOB FAIR
2025 JOB FAIR
2025 JOB FAIR



오늘을 함께한 순간 2025 가을축제

동아대 가을축제가 승학캠퍼스 뉴턴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는 다양한 동아리 공연과 학과 운영 부스, 초청 가수 무대 등으로 꾸러져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차 없는 축제'로 행사 종료까지 거의 모든 차량의 출입이 통제돼 학생들은 물론 일반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025.9.17.(수) ~ 2025.9.18.(목)



가을축제
하이라이트 영상

DONG-A FESTIVAL
DONG-A FESTIVAL
DONG-A FESTIVAL



#가을축제 #승학캠퍼스 #뉴턴공원

#차없는캠퍼스 #동아리공연 #학과부스 #축제현장



01 성영진 청학가족 회장 ‘개교 80주년 기부 릴레이’ 3호로 2억 원 전달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성영진(왼쪽) 청학가족 회장과 이해우 총장

성영진 청학가족 회장이 ‘개교 80주년 기부 릴레이’ 3호 주자로 2억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제학과 74학번인 성영진 회장은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찐 동아인’이다. 그는 지난 1980년 청학가족의 시작이 된 청학주유소를 시작으로 에너지사업과 레저사업, 운수업, 석재생산업, Si의료 진단기업 등을 설립하고 지난 2024년에는 (주)청학개발 회장에 취임하는 등 여러 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장학사업과 사회공헌활동에도 헌신해 온 성영진 회장은 기금액 규모 10억 원에 달하는 ‘청학장학회’ 기금운용 수익금을 동아대 경제학과 학생들만을 위한 ‘청학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지난 2021년 약

정식을 맺기도 했다. 이후 경제학과 연례행사인 ‘경제인의 날’에 후배들에게 청학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성영진 회장은 “입학으로 치면 52년, 졸업으로 치면 4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모교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학교가 발전해서 우수한 학생을 사회의 역군으로 길러내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해마다 조금씩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아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열린 ‘동아대 총동문회 창립 76주년 정기총회 및 동아인의 밤’에서 신정택(세운철강 회장) 총동문회장(2억 원)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1억 원)이 각각 1호와 2호 기부를 약속한 바 있다.

02 허동윤 (주)상지건축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허동윤 (주)상지건축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건축공학과 78학번인 허 회장은 부산의 대표 기업가로, 지난 2010년 (사)동아비즈니스포럼 창립 발기인 사전 모임부터 함께했으며 2025년 포럼의 제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동아대 동문 기업인 중심으로 지난 2011년 발족한 (사)동아비즈니스포럼은 2017년부터 사단법인으로 거듭나며 동남권 대표 비즈니스 단체로 성장했다. CEO 및 각종 단체장 소양 개발, 지역 사회 발전, 산학연계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허동윤 취임회장은 “역대 선배 회장님들과 모교 이해우 총장님, 신정택 총동문회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힘들수록 초심으로



(사)동아비즈니스포럼 회장 취임식 참석자들

돌아가라고 했다. 포럼 설립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네트워크 장이 되고 회원들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명품 동아비즈니스포럼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3 재단법인 김전 학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국내 최대 상수도 기업인 한국주철관공업(주)에서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김전’이 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재단법인 김전은 지난 2014년 산학협력단 연구비 1억 5,000만 원, 2024년 신소재공학과 장학금 5,000만 원에 이어 동아대에 3억 원을 기부해 오고 있다.

재단법인 김전은 한국주철관공업(주) 창업주의 유덕(遺德)을 받들어 1976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에 대한 장학지원 사업과 환경 관련 분야 지원, 순수·기초 학문 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정옥강 이사장은 “컴퓨터와 AI 분야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잘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태형 한국주철관공업(주) 대표이사, 정옥강 재단법인 김전 이사장, 이해우 총장

04 강정규 원장 등 부동산대학원 교원 일동 부동산사랑 교수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강정규 원장 등 부동산대학원 교원들이 '부동산사랑 교수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를 약정했다.

이번 발전기금 기부에는 전임교원인 강정규, 장철민, 이정석 교수와 겸임교원인 박종근, 이나나, 정은비, 서동우, 정희창, 이용득, 이병영, 홍성철, 이상재, 김우근, 임해경, 하성빈, 박성민, 박지혜, 박성무 교수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정기 기부를 통해 3,000만 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동아대 부동산학 교육과정 소액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동아대 부동산학 교육과정은 '부동산학교육과정 부동산사랑 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재학생·졸업생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점진적 확대를 통해 부동산학 교육과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해우 총장은 "부동산대학원이 단시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성장한 데는 강정규 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역할이 컸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발전기금 기부까지 해줘 고맙다. 부동산학 교육과정 명문대학으로서 지원에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사랑 교수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

강정규 원장은 "총장님의 실천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신입생 모집과 교육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며 "교원들과 힘을 모아 부동산대학원이 더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5 부동산학 박사과정 재학생 부동산학과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부동산학박사과정 재학생 45명이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기부에 참여한 부동산학 박사과정 재학생 45명은 동아대가 '고급화·전문화된 부동산 실무교육'의 명문대학교로 더욱 성장·발전하고 부동산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억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이해우 총장은 "부동산학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들의 귀한 뜻이 동아대 부동산학 교육과정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학교 발전의 주체로서 책임감과 열정을 보여준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들의 헌신이 부동산학 교육과 연구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우(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총장과 강정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부동산대학원장, 부동산학 박사과정 재학생들

06 동문 조관제 하와이 IMPAC 대표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미국 하와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관제 동문이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경영학과 73학번이자 ROTC 15기인 조관제(Dr. Kwan Jay Cho) 박사는 미국 학생 비자(i-20) 발급이 가능한 영어교육 전문 기관 'IMPAC(International Mid Pac College)'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23년부터 활발하게 교류 중인 동아대와 하와이주 교육청·고등학교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키스 하야시(Keith Hayashi) 하와이주 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이 동아대 승학캠퍼스를 찾아 이해우 총장 등을 만나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투어 방문을 통해 산업체와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박사는 방문단 일정 중 즉석에서 발전기금을 이해우 총장에게 전달했다.

조 박사는 "모교를 위해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모교와 하와이 지역 교육기관들이 더 활발하게 교류하길 바라고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스 하야시(Keith Hayashi) 하와이주 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이 동아대 승학캠퍼스를 찾았을 당시 동행한 조관제(맨 오른쪽) 박사

07 사학과 동문 일동 학과 발전기금 1,500만 원 기부

사학과 김광철 명예교수와 이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등 사학과 동문들이 학과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해우 총장과 김광철(72학번) 명예교수, 양운용(83학번) 건국고 한국사 교사, 이동일(87학번) 민주공원 관장, 박정열(12학번) 민주공원 민주시민교육담당자, 사학과 김학아·조형열·이주현 교수, 송은서(23학번)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철 명예교수를 비롯한 사학과 동문들은 "사학과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며 학과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후배들을 위해 지원자는 뜻에서 동문들이 십시일반 참여했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가 통합 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문들은 또 "모교가 발전하면 동문들의 어깨에도 힘이 들어간다"며 "인문 분야가 침체돼 있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대 사학과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

08 최문식 원우회장 등 MBA 57기 졸업생 일동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2024학년도 후기 석사(MBA) 학위수여식에서 최규환(왼쪽) 경영대학원장과 57기 최문식 원우회장

MBA 제57기 졸업생을 대표해 최문식 원우회장이 경영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석사(MBA) 학위수여식에서 학교 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최규환 경영대학원장은 이 자리에서 졸업생들에게 “2년 반 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동기들 간의 화합, 격려, 배려라는 굳건한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더욱 자랑스럽다”며 “동아대 경영대학원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과 ‘과정은 치열하게, 결과는 겸허하게’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문식 회장은 “2023년 입학식 때만 해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염려했던 일들이 엇그제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감격스럽다”며 “인생에서 소중한 또 하나의 결실을 얻게 됐고 학문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이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이 돼 개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로워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09 국제전문대학원 조현석 원우회장 등 동문회원 50명 국전원 발전기금 1,600만 원 기부



왼쪽부터 신동규 국제전문대학원장, 이해우 총장, 조현석 원우회장, 황기서 교수

국제전문대학원 조현석 원우회장을 비롯한 동문회원 50명이 발전기금 1,600만 원을 기부했다.

조현석 원우회장을 비롯한 국제전문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50명은 최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국제전문대학원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십시일반으로 발전기금을 모아 이날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에는 국제전문대학원 동문 개인뿐 아니라 ‘다문화 Alumni’, ‘녹우회’, ‘국제전문대학원 원우회’ 등 팀으로도 동참이 이어졌다.

학부와 석사과정을 모두 동아대에서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조 원우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동문들을 일일이 만나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해우 총장은 “재학생과 졸업생, 외국인 유학생까지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 더 의미가 있다. 국제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해 잘 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석 원우회장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다”며 “모교라서 학교에 애정이 깊다. 공부를 할수록 부족함을 느낀다. 눈앞에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더 견문을 넓혀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10 의과대학 동문 5기 홈커밍데이 개최 발전기금 8,000만 원 전달



의과대학 5기 동문회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발전기금 기부 기념 촬영

의과대학 5기 동문회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단체 기부로 조성한 8,000만 원의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구덕캠퍼스 의과대학 교육동 다목적홀에서 열린 의과대학 동문 5기 홈커밍데이 행사는 3부로 진행돼 1부 행사에선 박진철 5기 동문회장의 환영사와 내빈 소개 및 축사가 이어졌고 2부에서는 의과대학 연혁과 비전 소개, 동문 36년사를 정리한 영상 상영과 퀴즈가 마련돼 참석자 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어진 3부 만찬 시간에는 동문들이 친목을 다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11 빛하늘의원 박종건 대표원장 의과대학 장학기금 1억 2,000만 원 약정



의과대학 로비에서 열린 빛하늘의원 박종건 대표원장 장학금 전달식 참석자들

동문 빛하늘의원 박종건 대표원장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의과대학 장학기금 1억 2,000만 원을 약정했다.

박종건 원장은 앞서 지난 2023년 동아대 의과대학 학생 3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지난해 5명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앞으로 학기당 1,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동아대 의학과를 졸업한 박종건 원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지난 2020년부터 빛하늘의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부산 금곡복지회 이사, 부산 북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장, 부산 무궁화장학회 이사, 부산 북구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 환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박 원장은 부산 76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자, 외할머니·어머니·배우자까지 모두 부부·가족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에 가입돼 있다.

12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이해우 동아대 총장과 이수철 농협중앙회 부산본부장 등 관계자들

농협중앙회 부산본부가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대학발전지원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발전지원금 전달은 동아대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 성과에 따른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대학생 농촌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기금을 전달했다.

앞서 동아대와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분부는 지난 2021년 ‘농촌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동아대는 경남 지역에서 해마다 농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경남 거창군에서 2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감자 수확, 딸기 하우스작업, 마을 벽화 그리기 등 1만 3,464시간에 달하는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

13 XR 기술 스타트업 메쉬링크 1억 9,000만 원 상당의 ‘페러데이XR’ 기부

XR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교육 플랫폼 기업 메쉬링크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페러데이XR’를 동아대에 기부했다.

동아대는 메쉬링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메쉬링크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공정 XR 플랫폼 ‘페러데이XR’을 반도체학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페러데이XR’은 실제 반도체 제조 현장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공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기부는 동아대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의 통합산단 자체기금 조성에도 힘을 보태게 됐으며, 동아대는 기부받은 ‘페러데이XR’을 전력반도체



동아대와 메쉬링크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

체 교육시스템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보다 쉽고 몰입감 있게 제조공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 FRT로보틱스·(주)우아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금 기부



재난관리학과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회공헌 협약식 참석자들

FRT로보틱스 장재호 대표와 (주)우아 정영화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통해 각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을 대학원 재난관리학과에 지정 기탁했다.

이번 지정 기탁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할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공헌의 나눔과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재호 대표는 “웨어블 로봇 기술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래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재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15 한동우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 (재)서봉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 기부



동아대 동문인 한동우(오른쪽)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
최규환 교수(재)서봉장학재단 이사장

한동우 동문(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서봉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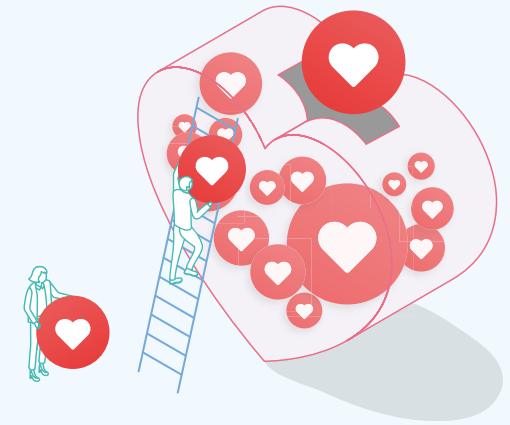
한 동문은 1994년 동아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 릿쿄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 본사에 입사, 현재 일본 및 아시아 전략과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재)서봉장학재단은 1996년 경영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졸업생들이 동아대 경영학과 출신이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던故김서봉 박사를 기려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해 설립한 재단이며, 지금까지 300여 명의 학생에게 모두 3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있다.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기금
홈페이지



발전기금
후원하기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동갑와인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발전기금 기부현황(2025년 9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단체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OK건설	목촌돼지국밥	스튜디오시원 주식회사	(주)건화
(주)HKM	거제리 명가	미래넷	신명이앤씨(주)	(주)도시를담다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국제전문대학원 동문회 원우회장	법률사무소 규리	아이튼튼소아청소년과	(주)동명기술공단
(주)건축사사무소양크르	및 동문일동	법률사무소 등불	얼굴선 성형외과의원	(주)동아엔지니어링
(주)메종건축사사무소	남포신용훈내과의원	법무법인 금정	우리의원	(주)사이트랩
(주)에듀피플스	덕천필피부과의원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	우리이비인후과	(주)서영엔지니어링
(주)유디엠	도화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우리이비인후과의원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주)지앤지코퍼레이션	동아대박사태권도장	비케이메탈	윤석중법률사무소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주)지앤시	동아대석사총동문회	새로운정형외과의원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주)하나기술단
(주)한울도시연구그룹	동아대학교 사학과 동문 일동	송우산업(주)	장윤석정형외과의원	(주)한국종합기술
LTA 태권도장	모자이크성형외과	송속심리언어상담센터	재단법인 김전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후원의 집

(주)울복스 부산점	대훈기획	밝은세상안과	송해희집	진선
금호희집	더진국하단점	본가 사하점	아이시티안과의원	초원복국
남포맥주	도리원	산정	어심초밥	카플러스
누리마을감자탕	동경초밥	상록광고기획	영의루	투썸플레이스 동아대점
대궁삼계탕	동원장수촌	소담	유유외과의원	플로르델리아
대물림 청송집	밝은눈안과의원	송윌타울	이모식당	홍부가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단체

강금순	고영라	김경희	김묘연	김순진	김정하	김향이	노현숙	박병규	박종귀	배상우	서주희	송정량		안분훈	오지영	윤아영	이동춘	이영호	이중헌	임지아	전찬민	정종혁	조정호	최병욱	표용희	홍순환
강기수	고유석	김광란	김문범	김승민	김정화	김현	노희관	박복자	박종민	배성류	서창현	송형기		안상근	오진환	윤영준	이명환	이영환	이지나	임지현	전효정	정중희	조종현	최병일	하고운	홍영습
강나현	고윤성	김구	김미란	김승우	김정희	김현구	라광현	박봉경	박종율	배유일	서주연	송호근		안새봄	오창일	윤원용	이무연	이옥부	이지옥	임지혜	전효철	정준식	조철기	최병진	하기영	홍용석
강남옥	고재연	김구연	김민국	김승일	김종국	김현민	류관호	박봉철	박종현	배주용	서현준	송훈춘		안영주	오형진	윤은기	이문정	이용국	이지원	임지홍	정강재	정준영	조현아	최보훈	하민호	홍자영
강누빈	고홍수	김권민	김민수	김승태	김종렬	김현수	류단비	박상석	박종훈	배주원	서화영	신경아		안원석	오홍민	윤은주	이문희	이용득	이지혜	임진규	정경미	정진아	조현준	최상윤	하성현	홍지우
강다연	공미정	김권호	김민정	김승호	김종목	김현우	류미향	박상아	박주상	배지영	서효진	신기옥		안일선	옥민	윤인식	이민섭	이용원	이진	임혜경	정경환	정진용	조형열	최서현	하성빈	홍지원
강대선	공병민	김규범	김민철	김시동	김종수	김현준	류민호	박상옥	박주현	배진경	서희선	신미경		안태형	왕민	윤정환	이민원	이용은	이진걸	임형규	정경훈	정진용	조혜정	최석열	하승태	홍현두
강대성	공윤종	김근민	김민형	김애희	김종식	김현진	류순식	박상원	박준혁	배태섭	선정애	신민준		안혜령	왕승민	윤지용	이민준	이용희	이진규	임형준	정규식	정찬식	조홍률	최성문	하승훈	홍혜정
강대원	공해경	김근우	김민희	김양근	김종옥	김형록	류승훈	박상혁	박준호	배한숙	선종수	신병준		안효성	왕카이	윤지원	이병선	이우석	이진태	임홍석	정기욱	정창석	주나안	최성수	하장현	황경원
강동울	곽기혁	김기수	김범수	김양이	김종혁	김형빈	류용주	박상현	박준홍	배형우	설남중	신봉준		안효의	용덕한	윤진호	이병영	이원구	이진호	장기철	정남기	정충훈	주석민	최수호	하정훈	황규홍
강동일	곽길수	김기영	김병국	김연국	김종현	김형석	류윤아	박상흠	박지연	배홍준	설형진	신부삼		양건석	우상국	윤찬수	이보경	이원빈	이찬연	장명수	정달식	정태호	주성식	최승제	하준목	황기식
강동현	곽명서	김기정	김병권	김영근	김주연	김형진	류은영	박석강	박지용	백건희	설형수	신상문		양근혁	우연주	윤창민	이보람	이원호	이창경	장문재	정대성	정해영	주인석	최승환	하춘목	황보한
강동훈	곽미진	김기중	김병기	김영민	김주영	김형철	류인동	박석주	박지은	백경민	성기근	신상열		양동원	우은정	윤태영	이상봉	이원희	이창수	장민우	정득현	정해용	주인숙	최신애	하현주	황부상
강래옥	곽선화	김길조	김병립	김영선	김주오	김혜경	류지희	박선희	박지혜	백상훈	성낙용	신상용		양봉만	우진희	윤해진	이상엽	이은숙	이창훈	장병일	정무섭	정현식	주재현	최영숙	한경문	황선락
강명진	곽은희	김나량	김병수	김영수	김주찬	김혜영	문건주	박성무	박지현	백승우	성병찬	신상원		양신우	원동화	윤현우	이상완	이은영	이철오	장보고	정미숙	정현욱	주차돈	최영익	한경훈	황성모
강명호	구관희	김나현	김병찬	김영우	김준석	김혜정	문동욱	박성민	박지혜	백승이	성봉자	신상의		양재호	위순선	이강배	이상용	이은임	이철우	장선희	정민	정현구	지강이	최영주	한덕희	황성원
강문성	구민준	김남국	김보람	김영준	김준우	김혜진	문동주	박성범	박진익	백영기	성세환	신성현		양주순	유경규	이강욱	이상원	이은주	이태광	장세훈	정민석	정현수	지선자	최영진	한동국	황성호
강민준	구종환	김남균	김보배	김영하	김준찬	김희경	문병진	박성빈	박진영	백정한	성수현	신성호		양준위	유경탁	이경민	이상재	이익선	이평세	장소라	정민준	정현우	진소영	최영호	한세억	황영식
강병중	권기항	김남희	김보연	김영환	김지건	김효준	문상진	박성혁	박차원	백주안	성이용	신승욱		양혜리	유길준	이경열	이상준	이인용	이필우	장소영	정병수	정호광	진윤달	최용수	한영립	황영현
강상모	권대성	김달효	김봉진	김영훈	김지나	김훈	문선영	박세영	박찬규	백차승	성지현	신영완		엄성혜	유수영	이경운	이서윤	이장욱	이혜우	장시영	정보윤	정호균	진재윤	최우석	한종원	황욱연
강석우	권명수	김대경	김상엽	김완중	김지숙	김희돈	문요한	박세준	박창구	백희자	손경석	신용우		엄수정	유숙경	이경태	이서정	이장현	이혜인	장윤창	정봉석	정호원	진종길	최유준	한준성	황원주
강성원	권성길	김대륙	김상준	김용준	김지현	김희선	문진호	박소연	박창열	변상민	손광석	신용택		에버안테이비스	유승진	이경학	이석용	이장호	이현	장재희	정봉식	정호목	진주한	최익준	한진섭	황인성
강성윤	권순일	김대영	김상진	김우근	김지혜	김희준	문찬혁	박소영	박창현	변성우	손민근	신용호		여승현	유승희	이경환	이선민	이재성	이현섭	장정표	정선우	정훈	진태훈	최인숙	한현석	황자영
강성현	권영근	김대욱	김상태	김우남	김진경	나용	문철주	박수천	박철홍	변성철	손영욱	신윤호		여태규	유재룡	이경희	이선우	이재윤	이현수	장정환	정성문	정희원	차경천	최일규	함정민	황재용
강영조	권영삼	김대웅	김상현	김우현	김진길	나진숙	민영기	박수호	박태정	변성호	손준순	신재봉		여호근	유재열	이고은	이선하	이재은	이현주	장준봉	정성원	정희창	차동환	최임근	허경행	황재윤
강은미	권영성	김대준	김상호	김원재	김진수	남경문	민지홍	박순영	박한솔	변영철	손종윤	신재욱		연진홍	유재욱	이광식	이선희	이재현	이현호	장지환	정수진	제갈진우	차병철	최재억	허남인	황정후
강은혜	권영준	김대중	김석지	김원준	김진웅	남광호	민혜숙	박순우	박한신	변영학	손창현	신정현		엄정국	유정욱	이국환	이성구	이재형	이현희	장철민	정순택	조경근	차윤석	최재영	허만용	황지연
강이래	권영탁	김대진	김선미	김윤경	김진윤	남기동	박경렬	박승중	박해일	변형석	손태중	신정환		엄창홍	유채은	이권희	이성호	이재훈	이혜민	장현웅	정승민	조관제	차윤숙	최재호	허성란	황지영
강정규	권오구	김대현	김선익	김윤정	김진홍	남명구	박경만	박시윤	박해지	사정훈	손판도	신종근		오민홍	유현우	이귀현	이소연	이정관	이혜숙	장현정	정승봉	조규판	차재용	최정현	허영민	황지현
강정호	권오근	김대환	김선진	김윤진	김진호	남보현	박경미	박언주	박현숙	서광민	손하은	신지윤		오선문	유현재	이기성	이수호	이정규	이혜원	장현준	정연봉	조기영	차재윤	최정호	허영호	황희정
강종훈	권우정	김덕현	김성기	김윤희	김창석	남상돌	박경식	박영일	박현우	서금홍	손현준	신창엽		오성배	유형욱	이기혁	이승용	이정만	이호재	전계훈	정영균	조동길	차종문	최정훈	허재복	
강주용	권재영	김도경	김성동	김은경	김창오	남상실	박경애	박영태	박현태	서대관	손현진	신태환		오성용	유호재	이기훈	이승욱	이정석	이호진	전관수	정영수	조문형	차현산	최지수	허정	
강지연	권주영	김동국	김성렬	김은주	김창완	남승덕	박경우	박영후	박형태	서동균	손현태	신호동		오세경	윤갑식	이나나	이승재	이정은	이홍재	전미라	정영진	조범근	채석용	최창윤	허정윤	
강지현	권창영	김동섭	김성목	김은혜	김청	남승현	박기상	박용섭	박혜진	서동우	손형수	신호민		오세량	윤경규	이난희	이승철	이정재	이희성	전민경	정영현	조상호	채승훈	최창현	허종문	
강태홍	권태정	김동수	김성욱	김의도	김청길	남윤성	박기현	박용성	박환석	서명교	손홍락	신희진		오소라	윤경원	이대명	이승태	이정화	이희원	전상학	정욱재	조석봉	채종덕	최한별	허준	
강하승	권한용	김동우	김성재	김익현	김춘영	남은희	박닝쿨	박유영	박효민	서미옥	손홍모	심미화		오수연	윤금주	이대성	이승현	이정훈	이희정	전선위	정우진	조성식	천상명	최현석	허진혁	
강향모	권혜민	김동준	김성진	김일봉	김춘호	남지연	박달해	박유진	박희덕	서상국	손협찬	심영규		오승현	윤대원	이대승	이승형	이종민	인정란	전성욱	정원빈	조숙희	천재림	최현중	허창환	
강혜진	권혜원	김동진	김성태	김일영	김태수	남찬섭	박도영	박윤경	박희태	서석준	송강직	심재후		오승환	윤만희	이도경	이승희	이종서	임미경	전성용	정유태	조아라	최광호	최현태	허태희	
계민수	권호철	김동환	김성현	김재한	김태완	남창우	박동민	박은경	반성욱	서승원	송대성	심형열		오영란	윤미	이도관	이시은	이종학	임병찬	전성현	정윤정	조애진	최구진	최형림	허형록	
고기훈	권희진	김동훈	김성훈	김재현	김태우	남현정	박동익	박은정	반한용	서쌍용	송명근	안경순		오영훈	윤민수	이도환	이시훈	이종호	임상호	전수민	정은비	조양홍	최규환	최형열	허혜숙	
고상만	기성훈	김만재	김세화	김재홍	김태원	노강민	박동환	박일근	방대중	서영호	송모란	안기범		오윤석	윤별	이동명	이신영	이종화	임석준	전순덕	정은우	조영정	최금화	최혜경	현수빈	
고선영	김건욱	김명기	김세훈	김점수	김태철	노상우	박미정	박재민	방성운	서우석	송민정	안길용		오응수	윤별아	이동숙	이아희	이주성	임소연	전아영	정의제	조완섭	최기혁	최호림	현안나	
고성광	김건우	김명범	김소현	김정근	김태현	노연정	박미향	박재우	방순금	서인아	송성훈	안나현		오인석	윤상우	이동원	이양복	이주현	임영희	전용기	정재경	조용복	최동원	최호석	현연수	
고성원	김경민	김명수	김소형	김정대	김태훈	노영진	박민선	박재진	배길석	서재유	송시영	안덕현		오임숙	윤상일	이동준	이영근	이준속	임윤경	전재혁	정재선	조우숙	최미숙	최홍규	현창욱	
고수현	김경진	김명숙	김수련	김정미	김태희	노영훈	박민성	박정국	배도정	서정우	송유진	안도형		오재환	윤상헌	이동진	이영민	이준용	임재환	전정순	정재현	조장우	최민철	추상욱	홍성철	
고여경	김경태	김명이	김수정	김정민	김하나	노창현	박민수	박정호	배동고	서정택	송인환	안미혜		오주성	윤성수	이동진	이영민	이준용	임재환	전정순	정재현	조장우	최민철	추상욱	홍성철	
고영남	김경화	김명중	김수진	김정아	김학이	노해성	박병권	박종근	배문형	서주환	송재만	안병훈		오주현	윤세련	이동철	이영석	이준혁	임정식	전찬권	정재현	조재현	최병열	탁규만	홍순권	